

【 한국사 】

1.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는 모두 다섯 부족이 있으니, 소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 등이다. 본래는 소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점점 미약해져서 뒤에는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였다. 그들이 설치한 관계(官階)에는 상가, 대로, 패자, 고추대가, 주부, 우태, 사자, 조의, 선인이 있다. (중략) (가)의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그것을 수신(禰神)이라 부르며, 또한 10월에 그 신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냈다.

- 『후한서』

- ①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 ②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 ③ 가(加)들이 사출도를 나누어 다스렸다.
- ④ 8조법을 만들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다.

2.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고구려 왕 거련이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와서 왕도인 한성을 포위하였다. 고구려 군대가 군사를 네 방향으로 나누어 협공하였고, 바람을 타고 불을 놓아 성문을 불태웠다.

- 『삼국사기』

(나) 왕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하여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의 북병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다가 난병들에게 살해되었다. 시호를 성(聖)이라 하였다.

- 『삼국사기』

- ① 신라가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 ② 백제가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 ③ 고구려가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겼다.
- ④ 백제가 마한의 잔여 세력을 복속하였다.

3.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제도로 옳은 것은?

여러 학생이 글을 읽어 3등급으로 벼슬길에 나갔는데, 『춘추좌씨전』 혹은 『예기』, 『문선』을 읽고 그 뜻에 능통하며 『논어』와 『효경』에 모두 밝은 자를 상품(上品)으로, 『곡례』와 『논어』, 『효경』을 읽은 자를 중품(中品)으로, 『곡례』와 『효경』을 읽은 자를 하품(下品)으로 삼았다. 예전에는 오직 궁술로써만 사람을 선발하였으나, 이때에 이르러 이를 개정하였다.

- 『삼국사기』

- ① 현량과
- ② 골품 제도
- ③ 독서삼품과
- ④ 상수리 제도

4.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 연개소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당에 강경책으로 대응하였다.
- 고구려가 당 태종이 이끄는 대군을 안시성에서 격퇴하였다.

	(가)	(나)	(다)	(라)	
	관산성 전투	살수 대첩	백제 멸망	기벌포 해전	발해 건국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5. 다음 문화유산이 소재한 지역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안승의 보덕국 건국
- ② 매소성 전투의 전개
- ③ 진흥왕의 순수비 건립
- ④ 원종과 애노의 난 발생

6. 밑줄 친 '왕'의 행적으로 옳은 것은?

왕께서 부지런히 힘쓰신 지 40여 년에 큰 공이 거의 이루어졌는데, 하루아침에 집안사람들의 화로 인하여 설 땅을 잃고 투항하였습니다. (중략)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자기의 임금을 버리고 반역한 아들을 섬긴다면 무슨 얼굴로 천하의 의로운 선비들을 보겠습니까. 하물며 듣자니 고려의 왕공께서는 마음이 어질고 후하며 근면하고 검소하여 민심을 얻었다고 하니 하늘의 계시인 듯합니다. 반드시 삼한의 주인이 될 것이니 어찌 편지를 보내 우리 왕을 문안, 위로하고 겸하여 왕공에게 겸손하고 정중함을 보여 장래의 복을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 『삼국사기』

- ① 발해를 건국하였다.
- ② 고려에 귀순하였다.
- ③ 철원에 수도를 정하였다.
- ④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7.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나라에 벼슬하는 자는 바로 귀한 가문 출신의 관리들이며, 이들은 가문의 명망으로 서로를 높인다. (중략) 나라의 재상은 대부분 훈척(勳戚)을 임명한다. 선종부터 이씨의 후손을 비로 맞이하였는데, 예종도 세자 때 이씨의 딸을 맞아 비로 삼았다.

- 『선화봉사고려도경』

• 최사추는 문헌공 최충의 손자이다. 어려서부터 공부에 힘써 글을 잘하였다. 문종 때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중략) 최사추의 아들은 최원과 최진이다. 최원은 여러 차례 승진하여 상서우복야가 되었고, 최진은 문하시랑평장사가 되었다. 이자겸, 문공미, 유인저가 모두 최사추의 사위이니 문벌의 성대함이 당시에 비길 바가 없었다.

- 『고려사』

- ① 과거의 폐단
- ② 훈척의 소멸
- ③ 문벌의 형성
- ④ 최씨정권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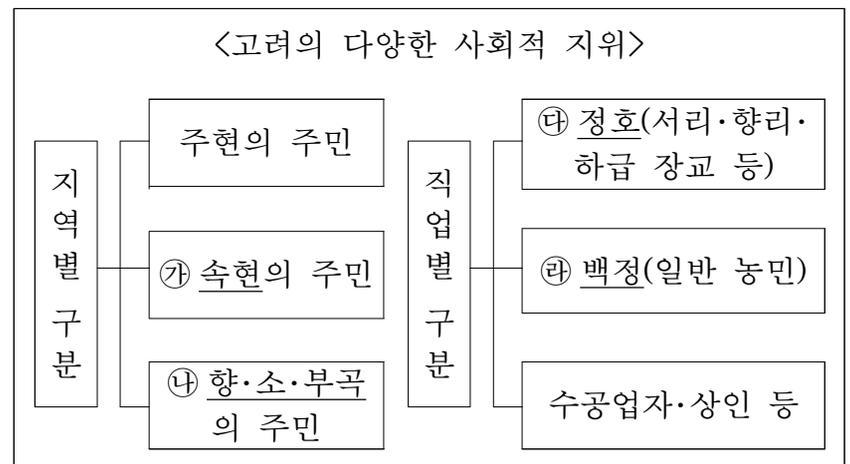
8. 다음 건의문이 올려진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옳은 것은?

엎드려 살펴보건대, 적신 이의민은 성품이 맹수처럼 잔인하여 임금님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들을 능멸하였습니다. 임금의 자리마저 흔들려고 했기에 화가 불꽃처럼 일어나고 백성들은 살길이 아득해졌습니다. 신들은 폐하의 신령스러운 위엄을 빌려 단번에 그들을 소탕하였습니다. 원하건대 폐하께서는 낡은 제도를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심에 오로지 태조의 올바른 법을 따르시어 중흥의 길을 환히 여시길 바랍니다. 이에 삼가 10가지 사항을 아뢰옵니다.

- 『고려사』

- ① 이의방이 정변을 일으켰다.
- ② 정방과 삼별초가 설치되었다.
- ③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하였다.
- ④ 묘청이 국호를 대위로 정하였다.

9.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았다.
- ② ㉡와 ㉣에는 수령이 파견되지 않았다.
- ③ ㉢은 ㉠과 달리 직역을 수행하지 않았다.
- ④ ㉣의 주민은 과거를 통해 하급 관료가 될 수 있었다.

10.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서적으로 옳은 것은?

〈농서 소개〉

- 1492년(성종 23)에 간행
- 곡물 이름을 이두와 한글로 표기
- 저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 보고 저술
- 당시 경기도 지역의 관행 농법을 정리

- ① 구황촬요
- ② 금양잡록
- ③ 농사직설
- ④ 농상집요

11.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허적과 허견의 사가(私家)의 부가 왕실보다 많은 것은 백성의 피땀을 뽑아낸 물건이 아닌 것이 없으며, 복선군 이남은 집 재물이 허적과 허견보다 많으니, 지금 적몰한 뒤에는 모두 백성을 구호해주는 비용으로 돌리면 어찌 조정의 아름다운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 송시열은 산림의 영수로서 나라의 형세가 고단하고 약하여 인심이 물결처럼 험난한 때에 감히 송의 철종을 끌어대어 오늘날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하였으니, 이런 것을 그대로 두면 무도한 무리들이 장차 연달아 일어날 것이니 당연히 멀리 내쫓아야 할 것이다.

- ①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 ② 정여립 모반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③ 노론이 연잉군의 세제 책봉을 주장하였다.
- ④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봉당 간 대립이 발생하였다.

12.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후금이 명에 대하여 전쟁을 포고하자, 명은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왕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군대를 이끌고 명을 지원하게 하되,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명령하였다. 조·명 연합군이 후금군에 패하자 강홍립은 후금에 항복하였다. 이후에도 명의 원군 요청은 계속되었지만, 왕은 이를 적절히 거절하면서 후금과 친선을 꾀하는 중립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 ① 허준이 『동의보감』을 완성하였다.
- ② 경기도에 한하여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 ③ 국방력 강화를 위해 5군영 체제를 완비하였다.
- ④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제한된 범위의 교섭을 허용하였다.

13. (가)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어려운 때를 만났으나, 하늘이 도와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이 글을 올려 황제의 칭호를 올리라고 제의하였다. 여러 차례 사양하다가 끝내 사양할 수 없어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가)(으)로 정하였다.
- 『승정원일기』

- 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 ② 토지 소유자에게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③ 근대식 교육 기관인 육영 공원을 설립하였다.
- ④ 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14.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임금은 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대원군을 불렀으며 대원군은 난병들을 따라 들어갔다. (중략) 민겸호가 황급히 대원군을 쳐다보고 호소하되, “대감, 날 좀 살려 주시오!” 하였다. 대원군은 쓴웃음을 지으며, “내 어찌 대감을 살릴 수 있겠소.” 하였다.
- 『매천야록』

(나) 청나라 제독군문 원세개가 대궐에 들어와 호위했다. 일본 군대는 퇴각했으며 임금은 북관묘에 행차하셨다. 홍영식과 박영교는 죽임을 당했다. 박영효, 김옥균, 서광범, 서재필 등은 일본군을 끼고 도망쳤다. 임금이 환궁할 때에 원세개는 하도감에 주둔하고 있었다.
- 『매천야록』

- ①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 ②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 ③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 ④ 조선은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였다.

15. (가)~(라)의 민주화 운동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 부·마 민주 항쟁
(나) 3·1 민주 구국 선언
(다) 6월 민주 항쟁
(라) 5·18 민주화 운동

- ① (가) → (나) → (라) → (다)
- ② (가) → (라) → (다) → (나)
- ③ (나) → (가) → (라) → (다)
- ④ (나) → (라) → (가) → (다)

16.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가)의 약력

- 1917년 대동단결 선언 발표 참여
-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위원
- 1930년 상하이에서 이동녕 등과 한국독립당 결성
- 1941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건국 강령에서 삼균주의 제창
- 1945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외무부장
-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최다 득표로 당선

- ① 김규식 ② 여운형 ③ 안재홍 ④ 조소앙

17.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 운동이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민중의 보편적인 지식은 보통 교육으로 가능하지만, 심오한 지식과 학문적 이치는 고등 교육이 아니면 불가능하며 (중략) 오늘날 우리 조선인도 세계 문화 민족의 일원으로 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며 문화의 창조와 향상을 기도하려면, 대학의 설립이 아니고는 다른 방도가 없도다.

- ① 조선인이 발행한 신문을 검열하였다.
 ② 공출제를 실시하여 미곡을 강제로 거두었다.
 ③ 조선 태형령을 제정하여 조선인을 탄압하였다.
 ④ 노동력 동원을 위해 국민 징용령을 시행하였다.

18. 다음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월 30일 오후 1시경 일본군의 전초 부대가 지나간 뒤, 화물자동차를 앞세우고 본대가 대전차령으로 들어 오기 시작했다. (중략) 한국독립군은 사격과 함께 바위를 굴러 일본군을 살상하고 자동차와 우마차를 파괴해 적을 완전히 고립시켰다. (중략) 4~5시간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일본군은 130여 명 이상이 살상되었고 일부 부대가 빠져나가는 데 그쳤다.

- ① 한·중 연합 작전으로 전개되었다.
 ② 양세봉이 이끄는 부대가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③ 독립군 통합 부대가 자유시로 이동하게 되었다.
 ④ 봉오동에서 패배한 일본군의 반격으로 시작되었다.

19.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구 백동화 교환에 관한 사무는 금고로 처리하게 하여 탁지부 대신이 이를 감독한다.
 제2조 교환을 위해 제출한 구 백동화는 모두 화폐 감정인이 감정하도록 한다. 화폐 감정인은 탁지부 대신이 임명한다.
 제3조 구 백동화의 품질, 무게, 무늬, 형체가 정식 화폐 기준을 충족할 경우, 1개당 금 2전 5리로 새로운 화폐와 교환한다. (중략) 단, 형태나 품질이 조악한 백동화는 매수하지 않는다.

- ① 한국 상업 자본에 큰 타격을 주었다.
 ② 재정 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시행되었다.
 ③ 전환국에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게 되었다.
 ④ 일본 제일은행이 한국의 중앙은행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20. 다음 연설을 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나는 3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온 세계의 젊은이들이 인종과 종교, 이념과 체제의 벽을 넘어 화합의 한마당을 이룬 서울 올림픽의 신선한 감명을 전했습니다. (중략) 이제 남북한의 유엔 가입으로 한반도는 평화공존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남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 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②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③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④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